

스페인어 상적 접어 구문에 관한 통사적 고찰*

서소영**

|| 차례 ||

1. 서론
2. 상적 접어에 관한 기존 분석
3. 상적 접어에 관한 통사적 분석 제안
4. 결론

[국문초록]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는 문에 출현함으로써 완료 의미를 부여해주는 문법 요소로 정의되어왔다. 의미적 측면에서 언급한 접어는 학자들에 따라 ‘완료상 (Perfective Aspect)’ 개념 혹은 ‘event’ 개념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Rigau, 1994, De Miguel & Fernández, 2000).

이러한 접어 se는 통사적 측면에서 간접 목적격 대명사에 해당되는 요소로서 ‘수혜자’ ‘논항에 해당된다는 분석 혹은 4형식 구문을 유도한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왔다 (Rigau, 1994, MacDonald, 2016). 그러나 문에서 상적 접어 출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통사적 분석 역시 문제점을 드러낸다.

기존 분석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와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간의 상응 관계를 설정할 것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상적 접어 se와 직접 목적어 간의 연계성 설정 개념에 근거한다. 우리의 분석 내에서,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는 ‘특정성’ 의미 자질을 수반하는 형태소로 정의된다. 이러한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적 접어를 수반하는 부정 명사구 전위 구문 역시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상적 접어, 완료상, 간접 목적격 대명사, ‘수혜자 논항’, ‘특정성’ 의미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어문학과. soyoungseo@bnu.ac.kr

자질, 목적격 조사 ‘을/를’, 부정 명사구 전위 구문.

1. 서론

스페인어에서 상적 접어 *se*는 다른 접어들과 달리 문에 선택적으로 출현함으로써 완료상 (Perfective Aspect) 의미를 부여해준다. 문에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문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사용될 경우에는 목적어 명사구가 한정적, 지시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즉 무관사 형태의 목적어와 함께 출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미적, 통사적 특징으로 인해 제 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은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 이와 같이 상적 *se*가 직접 목적어로 한정 명사구만 허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구문의 통사적 측면을 재 고찰해보고 이를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 구문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화자로서 제 2외국어인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분명한 통사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러한 상적 접어 *se*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언급한 접어를 내포하는 스페인어의 부정 명사구 전위 구문 역시 분석하고자 한다.

2. 상적 접어에 관한 기존 분석

스페인 전통 문법에서부터 완료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되었던 (Fernández Ramírez, 1987) 상적 접어 *se*는 타동사 구문에서 사용될 경우 반드시 한정적 명사구를 직접 목적어로 취한다. 즉 언급한 직접 목적어가 무관사 형태가 될 경우 비문 처리된다.

- (1) a. Juan se bebió (una caña/ *cerveza).
 'Juan ASPse drank a cane/ beer'
 b. Juan se ha visto (toda la película/ *cine inglés).
 'Juan ASPse has seen the entire film/ cinema english'
 (De Miguel & Fernández, 2000, p.13)

이러한 상적 접어 구문에 관한 기존 분석으로서 먼저 Rigau (1994)를 들 수 있다. Rigau (1994)는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가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수혜자' 논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음 예문 (3)과 달리 (2a, b)에서 왜 이러한 접어가 사용되지 못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2) a. La bomba me/*se ha estallado en las manos.
 'The bomb Cl./ ASPse has burst in the hands'
 b. El niño me/*se ha crecido mucho.
 'The child Cl./ ASPse has grown a lot'
 (3) a. El niño se me fue a Bosnia.
 'The boy ASPse Cl.. left for Bosnia'
 b. Se me ha muerto el canario.
 'ASPse Cl. has died the canary'
 c. Mis hijas se me comen un buey si se lo pongo.
 'My daughters ASPse Cl. eat an ox if Cl. it (I) wear'
 (De Miguel & Fernández, 2000, p.21)

즉 위 예문 (2)에서 접어는 '수혜자' 논항에 해당되고 문은 완료상을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어 se형태는 출현하지 못한다.

상적 접어 se에 관하여 Rigau (1994) 분석과 유사한 선상에서 제시된 연구로서 MacDonald (2016)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상적 접어 se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에 상응한다. 즉, 언급한 접어를 수반하는 구조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수반하는 4형식 구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적 접어

se를 수반하는 구조에서 직접 목적어는 ‘어휘적 동사 (the lexical verb) + 영 전치사 (the null PP)’로 이루어진 복합 술부 (a complex predicate)의 내적 주어 (inner subject)로 정의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직접 목적어를 복합 술부의 외부 논항 즉 내적 주어로 분석하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무 관사 명사 형태가 이러한 상적 접어 구문의 직접 목적어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본다.

- (4) a. Estos/los/unos científicos estudian el asunto.
 'Those/the/some scientists study the issue'.
 b. *Científicos estudian el asunto.
 'Scientists study the issue'.
- (5) a. Estos/los/unos zumos provocaron la reacción alérgica.
 'Those/the/some juices caused the reaction allergic'.
 b. *Zumos provocaron la reacción alérgica.
 'Juices caused the reaction allergic'.
 (MacDonald, 2016, p.14)

위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 주어 자리 즉 외부 논항에서 한정사 부류는 출현 가능하지만 무관사 명사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사적 특징이 상적 접어 se를 수반하는 구문의 직접 목적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관점 내에서 직접 목적어 역시 외부 논항에 해당되므로 주어와 마찬가지로 무관사 명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6) a. El león se comió a estos/los/unos científicos.
 'The lion ASPse ate DOM those/the/some men'.
 b. *El león se comió a científicos.
 'The lion ASPse ate DOM scientists'.
- (7) a. Juan se bebió estos/los/unos zumos.
 'Juan ASPse drank those/the/some juices'.
 b. *Juan se bebió zumos.
 'Juan ASPse drank juices'.

(MacDonald, 2016, p.15)

MacDonald (2016)는 외부 논항이 동사구 VP의 상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를 수반하는 구문에서 외부 논항으로서 직접 목적어 역시 문의 상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즉 그에 따르면 다음 예문들에서 직접 목적어는 내적 주어 즉 외부 논항에 해당되며 언급한 접어 *se*는 간접 목적어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 자료에 근거한다.

- (8) a. El lobo se comió a Juan.
 'The wolf ASPse ate DOM Juan'
 b. El lobo se lo/*le comió.
 'The wolf ASPse Cl. (him)/ *Cl. (to him) ate'
 (Macdonald, 2016, pp.2-3)

직접 목적격 대명사 *lo* 구문에 습관적으로 간접 목적격 대명사 *le*를 사용하는 방언적 요소인 *leísta* 현상을 보이는 스페인 방언지역에서 직접 목적어는 *lo*만 허용하고 *le*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문 (8b)).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MacDonald (2016)는 스페인어에서 접어 *se*가 간접 목적격 대명사로 정의된다는 점을 가정했다. 즉 상적 접어 *se*가 간접 목적격 대명사에 해당되므로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격 대명사 *le*가 아니라 직접 목적격 대명사 *lo* 형태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적 접어 *se*가 생략된다고 해서 문이 비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사적으로 다른 일반 간접 목적격 대명사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분석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즉, 언급한 상적 접어 *se*는 일반적인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달리 논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Pérez Vásquez, 2002). 다시 말해 술부의 논항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 (9) a. Juan (se) tomó un té. 'Juan (ASPse) took a tea'

- b. (Nos) comimos una pizza/ una hamburguesa.
'(ASPse) (we) had a pizza/ a hamburger'
 - c. Juan (se) caminó diez cuabras. 'Juan (ASPse) walked ten blocks'
- (10) a. *Juan se tomó té. 'Juan (ASPse) took tea'
- b. *Nos comimos pizza/ hamburguesa.
'(ASPse) (we) had pizza/ hamburger'
 - c. *Juan se caminó. 'Juan (ASPse) walked'
- (Trebisacce, 2013, p. 198)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적 접어 se는 완료적 의미를 수반하는 구문에는 등장하지만 이러한 문법 요소가 결여된다고 해서 문이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급한 접어가 출현할 경우 완료상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직접 목적어가 한정적 요소를 수반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를 뿐이다.

상적 접어 se를 간접 목적격 대명사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존 분석들이 수반하는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재고찰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상적 접어에 관한 통사적 분석 제안

전통 문법에서부터 완료 의미 혹은 event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온 (Fernández Ramírez, 1987, De Miguel & Fernández, 2000)¹⁾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 구문은 무관사 형태의 직접 목적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독특

1) De Miguel & Fernández (2000)는 상적 접어 se가 술부에 의해 표현된 event의 한 단면을 강조해주는 일련의 양화사적 속성을 지니는 상적 운용자로 정의된다는 점을 제안했다. 즉, 상적 접어 se를 허용하는 술부는 복합적 event에 해당되는데 언급한 접어는 술부에 의해 표현된 하위 event들 가운데 하나를 강조해준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관점 내에서 스페인어의 aún ('yet')이나 todavía ('still'), ya ('already')와 같은 부사와 마찬가지로 운용자로서 상적 접어는 event의 일부를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통사적 특징을 지닌다.

관련 구문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언급한 접어 *se*가 동사구내 핵 *V*에 부가되어 파생되는 일련의 형태소로서 한국어 목적격 조사 ‘을/를’에 상응하는 요소로 분석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한국어처럼 조사 형태를 지니는 않는 스페인어는 접어 형태를 취함으로써 직접 목적어에 ‘특정성 (specificity)’ 자질을 부여해주고 문을 완료상 (Perfective Aspect) 구문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와 한국어 목적격 조사 ‘을/를’ 간의 연계성을 설정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완 (201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어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은 다른 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격 조사에 관해 신현숙 (1982)은 ‘주의 집중’ 개념을 제안한다. 즉 화자가 ‘화제의 초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임홍빈 (1979)은 이러한 목적격 조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제화’ 개념을 가정했고 신창순 (1984)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배타적 대립’ 개념을 수반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 (11) a. 그 옷 사겠어요.
 b. 그 옷-을 사겠어요.
 (김성완, 2016, pp.45-46)

즉, 위 예문에서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옷이 아닌 그 옷을 사겠다는 의미로서 배타적 대립 의미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이 격표지자로서의 문법적 기능 이외에도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단순히 격표지자로서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성완 (201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구어체에서 격표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목적격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급한 목적격 조사가 음성적으로 실현될 때에는 문법적 기능 이외에 다른 어휘적 의미가 부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어휘적 의미

가 목적격 조사 ‘을/를’ 출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격 조사 ‘을/를’의 어휘적 의미는 특정성 (specificity) 자질로 또한 정의될 수 있다 (이만기, 2004, p.164).

- (12) a. 영희가 [어떤 학생-을] 보았다. (특정한 학생)
(Kim, 1993, p.23)
- b. 나는 존이 [어떤 아이] 야단치는 거 보고 놀랐다. (불특정한 아이)
(이만기, 2004, p.164)

이만기 (2004)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목적격 조사 ‘을/를’을 수반하는 목적어는 언급한 ‘특정성’이라는 의미해석을 내포함으로써 술부가 완료상을 표현하도록 한다. 즉 이러한 목적격 조사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완료적 해석을 지니게 된다. 이를 결여할 경우 불 완료상에 해당됨으로써 반복적 해석을 나타낸다.

- (13) a. 한 시간 동안 존이 편지를 썼다. (완료적 해석)
- b. 한 시간 동안 존이 편지 썼다. (반복적 해석)
- (14) a. 한 시간 안에 존이 편지를 썼다. (완료적 해석)
- b. ??한 시간 안에 존이 편지 썼다. (반복적 해석)
(이만기, 2004, pp.164-165)

위 자료가 보여주듯이, 한국어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은 명사구가 직접 목적격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격 표지자로서 보다는 목적어에 ‘특정성’이라는 의미자질을 부여해줌으로써 문이 완료상 자질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과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가 상응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즉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가 도입되는 구문에서 접어는 어휘적 의미 즉 ‘특정성’ 자질을 내포함으로써 문을 완료상 구문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 를’이나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는 직접 목적어

에 ‘특정성’ 자질과 같은 어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출현한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가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에 상응한다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언급한 접어와 직접 목적어 간의 연계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관점에 기초한다.

먼저, 상적 접어와 직접 목적어 간의 연계성을 설정한 학자로서 Escobar & Torrens (2007)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는 직접 목적격을 점검해주는 기능 핵에 파생됨으로써 직접 목적격 점검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15) a. El niño se comió la manzana.
 'The boy ASPse ate the apple'.
 b. La niña se leyó el libro hasta el final del todo.
 'The girl ASPse read the book to the end'

- (16) TP
 /
 W
 T'
 /
 W
 T vP
 /
 W
 v'
 /
 W
 v AgrOP
 /
 W
 AgrO(acc) VP
 SE

(Escobar & Torrens, 2007, pp. 60-61)

이러한 구조 내에서 상적 접어 *se*는 직접 목적격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기능 핵 Agr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접어 *se*를 직접 목적격 점검 핵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언급한 접어가 타동사 구문에 반드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문제점을 드러낸다. 즉 예문 (17)에서 접

어 *se*가 등장하지 않아도 직접 목적어 *la manzana*는 다른 타동사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격을 점검받게 되고 문은 정문이다.

(17) a. El niño comió la manzana.

'The boy ate the apple'.

b. La niña leyó el libro.

'The girl read the book'

즉, 접어 *se*를 결여함으로써 '사과를 다 먹어버렸다' 혹은 '책을 다 읽어버렸다' 등의 의미를 부여해주지 못하지만 직접 목적어의 격 점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가 직접 목적어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Escobar & Torrens (2007) 분석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언급한 접어가 직접 목적격 점검에 관여하는 기능 핵에 위치하며 실제로 격 점검에 참여한다는 이러한 관점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접 목적격 점검이외에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와 직접 목적어 간에 어떠한 연계성을 설정할 수 있는가? 스페인어에서 주로 직접 목적격 점검에 관여하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의 경우 직접 목적어와 성, 수에 있어서 일치를 이룸으로써 상적 접어 *se*와는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달리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특정성 (specificity)' 의미 자질을 내포함으로써 상적 접어 *se*와 의미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직접 목적격 대명사의 의미적 특징에 관한 분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uñer (1988) 분석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목적격 대명사는 [+/- 특정성 (specificity)] 자질로 구별된다. 즉, 스페인어에서 직접 목적격 대명사와 간접 목적격 대명사 간의 차이는 '특정성' 자질에 있다는 것이다.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고유하게 [+ 특정성 (specificity)] 자질을 내포하는 반면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특정성 (specificity)] 자질을 지닌다. Uriagereka (1995) 역시 목적격 대명사를 구문적 관점에서 연구했는데 그에 따르면, 직

접 목적격 대명사가 차지하는 위치는 근본적으로 '특정성 (specificity)' 속성에 기인한다. 즉, 스페인어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고유하게 '특정성'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Sportiche (1992) 역시 스페인어의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달리 '특정성' 자질을 내포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다음 중남미 방언 자료에서 이러한 측면을 잘 살펴볼 수 있다.

- (18) a. La vi a Mafalda. 'Cl. (I) saw Mafalda'
 b. ¿A cuántas de ellas las interrogan?
 'How many of them Cl. interrogate?'
 c. *Lo vi un camión? 'Cl. (I) saw a truck?'
 (Suñer, 1988, 412)
- (19) a. Pedro no le vio a nadie.
 'Pedro no Cl. (he) saw nobody'
 b. *Pedro no lo vio a nadie.
 'Pedro no Cl. (he) saw nobody'
 (Ormazabal & Romero, 2010, 4)

위 예문 (18c, 19b)에서 목적어 명사구가 이러한 '특정성' 자질을 결여하므로 직접 목적격 대명사와 함께 올 수 없다. 반면에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언급한 부정 명사구와 함께 출현가능하다.

또한 스페인어에서 간접 목적어는 일반 구문에서도 이중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직접 목적어는 지각 동사 구문을 제외하고 비문 처리된다. 이 때 간접 목적어는 부정 명사구와 이중 형태를 이룰 수 있으나 직접 목적어는 반드시 한정적 목적어와 이중 형태를 형성한다.

- (20) a. Le regalaremos el libro a María.
 'Cl. (we) will give the book to Mary'
 b. Les expliqué lo sucedido a unos policías.
 'Cl. (I) explained what happened to police officers'
 c. Le hablaré de este asunto a gente de la universidad.
 'Cl. (I) will talk about this affair to people of the university'

- d. ¿A quién le has dado el libro?
'To whom Cl. (you) have given the book?'
 - e. No le debemos nada a nadie.
'No Cl. (we) owe nothing to anyone'
 - (21) a. *Lo regalaremos el libro.
'Cl. (we) will give the book'
 - b. *Las compramos unas cervezas.
'Cl. (we) will buy some beers'
 - c. *La visité (a) gente de la universidad.
'Cl. (I) visited people of the university'
 - d. *¿Qué libros los has regalado?
'What books Cls (you) have given?'
 - e. La vimos a ella. 'Cl. (we) saw her'
 - f. *No lo vimos a nadie. 'No Cl. (we) saw nobody'
- (Roca, 1996, pp. 85-86)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달리,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일반 구문에서 목적어가 출현할 경우 지각 동사 구문을 제외하고 대명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지각 동사의 경우에도 강한 한정적 자질을 지니는 경우는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허용하지만 부정 명사구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문들은 분명하게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달리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특정성’ 자질을 내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의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의미적으로 [+ 특정성 (specificity)] 자질을 지닌다는 점은 다음 예문을 통해 또한 확인될 수 있다.

- (22) a. No tengo coche. 'No have(I) car'
- b. Yo tampoco tengo. Vendí el mío el año pasado.
'I neither have. (I) sold the mine the year past'
- (23) a. No tengo el coche de Juan . 'No have(I) the car of Juan'
- b. Yo tampoco lo tengo.
'I neither that have' (Groppi, 2008, p.4)

위 예문에서 목적어 명사구가 무관사일 경우와 달리 한정성 자질을 지닐 때 즉, 정관사를 수반할 때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출현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스페인어에서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특정성’이라는 의미 자질로 인해 간접 목적격 대명사로부터 구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는 Rigau (1994), MacDonald (2016)에서 지적하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연계성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적격 대명사에 상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는 기본적으로 직접 목적어에 연계됨으로써 직접 목적격 대명사와 ‘특정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공유한다. 즉,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는 Escobar & Torrens (2007)가 제안하는 직접 목적격 접음을 위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 내에 있는 목적어 명사구에 ‘특정성’ 자질과 같은 의미적 자질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는 형태소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은 다음 동사구내 의미역 관계와 상적 접어 출현 가능성을 살펴볼 때 더욱더 분명해진다.

스페인어에서 상적 접어 se 출현은 동사구 내 외부 논항의 의미역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또한 내부 논항과의 지시적 상응관계 혹은 직접 목적어의 어휘적 속성 등과 연계되어 있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4) a. Me vi la película/ la exposición en un par de horas.
 'ASPse (I) saw the movie/ the exhibition in a couple of hours'
 b. *Me vi la costa/ la cima y me dirigí a ella.
 'ASPse. (I) saw the coast/ the top and CL. (I) went to her'
 (De Miguel & Fernández, 2000, p. 20)

즉, 직접 목적어로 도입되는 명사구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접어 se 출현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다.

- (25) a. Juan se sabe la lección entera.
'Juan ASPse knows the lesson whole'
b. Juan se vio todas las películas de Dolan.
'Juan ASPse saw all the movies of Dolan'
- (26) a. *Juan se sabe que Pedro va a venir.
'Juan ASPse knows that Pedro is coming'
b. *Juan se vio un pájaro. 'Juan ASPse saw a bird'
(Trebisacce, 2013, p. 200)

위 예문 (25)에서는 내부 논항의 지시적 속성과 접어의 상적 속성 간에 상응관계가 설정되므로 정문에 해당되지만 예문 (26)에는 언급한 상응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비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부논항과 상적 접어 se 간에 상응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정문은 아니다.

- (27) *El sol se secó la ropa. 'The sun ASPse dried the clothes'
- (28) a. Juan se secó los platos de la cena.
'Juan ASPse dried the plates of the dinner'
b. *El viento se cerró la puerta. 'The wind ASPse closed the door'
- (29) a. *Se sobró sal. 'ASPse (was) left salt'
b. *Se ocurrió/ pasó/ sucedió algo terrible.
'ASPse happened/ passed/ occurred something terrible'
(Trebisacce, 2013, p. 201)

예문 (27-28)은 직접 목적어 즉 내부 논항뿐만 아니라 주어에 해당되는 외부논항과의 관계 역시 접어 출현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외부 논항이 '행위자 (agent)' 의미역을 지닐 때 상적 접어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주어로서 외부논항을 취할 수 없는 비대격 동사 (unaccusative)는 예문 (29)에서 볼 수 있듯이, 언급한 접어를 허용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상적 접어 se 출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우리는 언급한 접어가 동일한 동사구 VP내에 파생됨으로써 외부 논항뿐만 아니라 내부논항과 의미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²⁾

- (30) ... VP
 / W
 DP V'
 / W
 V DP
 / W
 V ASPse

위 구조 (3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적 접어 *se*는 일련의 형태소로서 동사 핵 *V*에 부가된 채 파생된다. 이러한 파생과정을 통해 두 요소 즉 동사 *V*와 상적 접어 *ASPse*는 기본적으로 의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특정성’ 자질을 수반한 채 파생되는 형태소로서 상적 접어는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 제한 받는다. 즉, 다음 예시가 보여주듯이, 스페인어에서 상적 접어 *se*는 모든 동사 부류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부가 여부가 결정된다.

- (31) a. Juan se leyó un libro. 'Juan ASPse read a book'
 b. Juan leyó un libro. 'Juan read a book'
 (32) comer(*se*) ('eat'), beber(*se*) ('drink'), tragar(*se*) ('swallow'),
 tomar(*se*), ('take'), fumar(*se*) ('smoke'). conocer(*se*) ('meet'),
 pensar(*se*) ('think'), saber(*se*) ('know').

(Pascual & García, 2012, p.234)

Pascual & García (2012)가 지적하고 있듯이, besar ('kiss'), casar ('marry')와 같은 동사 부류는 상적 *se*를 허용하지 못하는 반면 예시 (31-32)

2) 이와 같이 동사 핵 *V*에 부가된 채 파생된 상적 접어 *ASPse*는 자신의 상 (Aspect) 혹은 event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L-Syntax 혹은 통사부의 관련 기능 핵으로 이동하여 자질을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event 자질 점검 과정에 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적 접어의 통사적 특징에 관한 재 고찰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에 해당되는 동사들은 언급한 접어와 동반 출현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스페인어에서 상적 접어 출현에 동사의 의미적 제약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측면은 언급한 접어가 동사 핵 V에 부가됨으로써 의미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가 간접 목적격 대명사에 해당된다는 기존 분석들 (Rigau, 1994, MacDonald, 2016)과 달리 동사 핵 V에 부가된 형태소로서 동사와 의미관계를 형성하며 보어인 직접 목적어에 ‘특정성’ 자질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같은 동사구 VP내에 파생되는 직접 목적어는 ‘특정성’ 자질을 내포하게 됨으로써 한정사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지시 (reference)' 개념을 내포하게 된다. 한국어의 직접 목적격 조사 ‘을/를’에 상응하는 요소로서 목적격 할당 보다는 ‘특정성’ 자질과 같은 어휘적 의미를 목적어 명사구에 부여해주는 요소로 이해된다. 즉, 한국어의 경우 직접 목적격 조사 ‘을/를’이 직접 목적어에 동반 출현함으로써 ‘특정성’ 자질을 부여해주는 반면 스페인어 상적 접어는 동사 핵 V에 부가된 형태소로서 보어인 직접 목적어에 언급한 의미 자질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상적 접어 *se*가 동사 핵 V에 부가된 채 파생되는 이유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언급한 접어의 출현이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가 ‘특정성’ 자질을 내포한 채 파생된 일련의 형태소로서 보어인 직접 목적어에 언급한 의미자질을 부여해준다는 가정은 다음 부정 명사구 전위 구문을 살펴볼 때 더욱 더 분명해진다. 이러한 구문에서 상적 접어 *se*는 이중 목적격 대명사 출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언급한 접어가 보어인 직접 목적어에 ‘특정성’ 자질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구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가 생략되었을 때 이를 대신해서 대명사적 기능으로 목적격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페인어에는 언급한 목적어 명사구가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목적격 대명사를 이중 형태로 사용하는 구문이 있다. 이러한 구문은 주로 목적어 명사구를 강조하기 위해 이를 문두로 이동시키는 구문으로서 언급한 목적어가 강한 한정성을 지닐 때 의무적으로 목적격 대명사를

이중 형태로 허용한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 (33) a. Las peras las como yo. 'The pears Cl. eat I'
 b. *Peras las como yo. 'Pears Cl. eat I'
 c. *Las peras como yo. 'The pears eat I'
- (34) a. A las profesoras de español las conocí en Chile.
 'the professor of spanish Cl. met in Chile'
 b. Este bocadillo lo he hecho con lechuga.
 'this snack Cl. (I) have made with lettuce'
 c. Tus llaves las encontré en la casa.
 'Your keys Cl. (I) found in the house'

위 예문들은 강조를 위해 목적어 명사구를 문두로 도치시키는 구문으로서 이러한 구문들에서 목적격 대명사는 이동한 명사구가 강한 한정성을 수반할 경우 즉 정관사나 다른 한정사를 지닐 경우에만 이중적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무관사 형태의 명사구가 도치될 경우에 목적격 대명사가 출현하면 비문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의 전치 주어는 구 정보 자질을 내포함으로써 한정성 자질을 지니지만 강조될 경우 무관사 형태로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직접 목적어 도치 구문에 도입되는 목적어 명사구는 전치 주어보다도 더 강한 한정성 자질을 내포함을 알 수 있다. 즉, 스페인어에서 이중 목적격 대명사를 허용하는 목적어 명사구는 Milsark (1974) 용어로 강한 한정 명사구에 속한다. 즉, 강조를 위해 문두로 직접 목적어를 이동할 경우, 무관사 명사구는 목적격 대명사와 함께 이중 형태로 출현할 수 없다. 스페인어에서 전치된 목적어가 무관사 혹은 전형적인 부정관사를 수반하는 경우 직접 목적격 대명사와 동반 출현하지 못한다.

- (35) a. El informe lo encontró confuso.
 'The information Cl. foundo confused'
 b. *Un informe lo encontró confuso.
 'An information Cl. foundo confused'

(Francom, 2003, p.30)

이와 같이 문두로 도치된 직접 목적어가 강한 한정성 자질을 수반할 때 이중 형태로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허용한다는 점은 쉽표를 통해 문장 밖으로 목적어를 이동 시키는 한정 명사구 전위(dislocation) 구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 (36) a. El libro, lo he dejado encima de la mesa.
'The book, Cl. (I) have left on the table'
- b. A María, la he visto en la entrada del cine.
'Mary, Cl. (I) have visited at the entrance of the cinema'
- c. Esto, ya lo tengo que añadir.
'This, already Cl. (I) have to add'

(Leonetti & Escandell-Vidal, 2006, p.2)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에서 한정사를 내포하는 명사구가 쉽표를 통해 문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왼쪽으로 전위될 때에는 일반적인 목적어 명사구 도치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수반하게 된다. 즉 목적어 명사구가 한정사를 수반할 경우 문두로의 목적어 이동 구문뿐만 아니라 쉽표를 통한 문 밖으로의 목적어 전위 구문에서도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의무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직접 목적어 명사구가 외현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중형태로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사용되는 구문에서 언급한 명사구는 강한 한정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부정 관사를 수반하는 명사구가 문두로 전위됨으로써 쉽표를 통해 문장으로부터 분리되는 구문에서는 상적 접어 se가 출현할 경우 언급한 직접 목적격 대명사의 이중적 출현이 가능하다. 스페인어의 일반적인 문두로의 목적어 명사구 이동 구문 속성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부정 명사구 전위 현상과 관련된 직접 목적격 대명사 출현 가능성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 (37) a. Un libro, (*lo) he leído. 'A book, (*Cl.) (I) have read'
 b. Una novelita, te *(la) lees en una tarde.
 'one novelette, ASPse *(Cl.) (you) read in an afternoon'
 c. Un helado, me lo tomaría con mucho gusto.
 'An ice cream, ASPse Cl take with pleasure'
 d. 3000 euros, te los vas a gastar; difícilmente te puede costar menos.
 '3000 euros, ASPse Cl (you) will spend; hardly to you can cost less'

(Leonetti, 2011, 115-116)

위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적 접어 *se*가 출현할 때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이중적으로 사용된다. Leonetti (2011)는 상적 접어 *se* 형태가 사용될 경우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출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시제와 상관없이 다양한 많은 예문에서 상적 접어 *se*는 이중적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허용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 (38) a. Un semáforo, no me lo saltaré nunca.
 'A traffic light, no ASPse Cl. will jump never'
 b. Un semáforo, casi nunca me lo salto.
 'A traffic light, almost never ASPse Cl. jump'

(Hernández, 1990, 157)

일반적인 목적어 전치구문과 달리, 상적 접어 *se*가 등장할 때 이와 같이 전위된 명사구가 부정관사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수반한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구문에서 문밖으로 전위된 명사구는 의미적 측면에서, Leonetti (2011), Roca (1996)가 지적하듯이, '특정성 (specificity)'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분석 내에서 볼 때, 상적 접어는 동사구 VP 내에서 자신의 보어인 직접 목적어 명사구에 '특정성' 자질을 부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문 밖으로 전위된 직접 목적어는 이중적으로 직접 목적격 대명사를 허용하게 된다. 즉,

상적 접어 se를 통해 부정 명사구가 ‘특정성’ 의미 자질을 내포할 때 이중적 목적격 대명사와 동반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특정성’ 의미 자질을 수반하는 직접 목적어 명사구가 문두로 전치 혹은 문 밖으로 전위될 때 스페인어에서 이중적 목적격 대명사가 출현하게 된다. 이 때 직접 목적어가 부정관사를 수반함으로써 부정성을 지니는 구문에서 상적 접어 se가 출현할 경우 언급한 목적어 명사구에 ‘특정성’ 자질을 부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중적 목적격 대명사를 허용하게 된다.³⁾

4. 결론

3) 이와 같이 상적 접어 se가 출현함으로써 직접 목적어 명사구에 ‘특정성’ 자질을 부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직접 목적격 대명사의 이중적 출현이 허용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어와 달리 스페인어에서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스페인어에서는 문장 어순이 의미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페인어는 대표적인 영 주어 언어로서 동사활용 형태가 주어 인칭을 표현해 주므로 주어 생략이 가능한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 주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어 명사구는 구 정보 자질을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Vallduvi, 1990, Lambrecht, 1994, Javier & Melvin, 2012). 즉 스페인어에서 전치 주어는 일반적으로 한정성 자질, 구 정보 자질을 수반하므로 강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관사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어순은 화용적 정보를 나타내주는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전치 주어가 구 정보 자질을 표현해주는 반면 주어가 후치할 경우에는 신정보 자질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주어가 동사 뒤로 갈 경우 언급한 주어 명사구는 관사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주어 어순에 따라서 화용적 정보 자질이 결정되고 이는 문장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한국어는 어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손 병룡, 2001). 문장 구조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한국어에 비해 스페인어는 문장 어순 등 구조에 따라 의미변화를 겪는 언어에 해당되므로 상적 접어 se 구문에서 전위된 부정 명사구는 이중적 목적격 대명사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즉, 이중형태로 직접 목적격 대명사가 사용됨으로써 전위된 직접 목적어 명사구와 의미적, 화용적 일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스페인어에서 상적 접어 se는 한정 명사구를 직접 목적어로 취함으로써 문에 완료상 의미를 부여해주는 요소로 정의된다. 이러한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은 의미적, 통사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제 2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러한 접어 형태는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 요소에 해당된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내용을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스페인어의 상적 접어 se는 동사구 VP내 핵인 V에 부가되어 과생되는 일련의 형태소로 정의되며 이는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에 상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을 제안했다. 즉, ‘을/를’과 같은 직접 목적격 조사를 결여하는 스페인어에서 접어 se 형태는 직접 목적어에 ‘특정성’ 자질을 부여해 줌으로써 문을 완료상 구문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페인어 상적 접어 se의 ‘특정성’ 자질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정 명사구 전위 구문에서 도입되는 이중 목적격 대명사 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우리의 분석 내에서 볼 때, 직접 목적어 명사구가 부정관사를 수반함으로써 부정성을 내포하는 구문에서 상적 접어 se가 도입될 경우 언급한 목적어 명사구에 ‘특정성’ 자질을 부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중 목적격 대명사 출현을 허용하게 된다.

[ABSTRACT]

Syntactic Studies on Spanish Aspectual SE

The aspectual clitic SE in Spanish has been defined as an aspectual class marker or event semantics. This aspectual clitic SE is related to perfective structures.

In the sentences without the aspectual clitic SE is permitted the presence of an in-adverbial or a for-adverbial. But in the presence of the aspectual clitic mentioned, the for-adverbial is ungrammatical. This ungrammaticality of a for-adverbial is an indication that the aspectual SE is an aspectual element or event structure. That is to say, the in-adverbial is accepted and grammatical.

In the transitive constructions with the aspectual SE, the direct object requires the presence of the determinant, thus this object cannot be a bare nou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Spanish aspectual SE used in certain transitive construction corresponds to the Korean particle 'ul/ rul'.

Key words : the aspectual clitic SE, an aspectual class marker, event semantics, perfective structures, the determinant, a bare noun, the Korean particle 'ul/ rul'.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성완. 「러시아어 통. 번역을 전제한 한국어의 목적격조사 ‘을/를’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연구」, 『슬라브 연구』, 32(2), 2016, 41-59면.

손병룡. 「사고와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 『영어 영문학 연구』, 45(2), 2001, 131-152면.

□ 단행본

Fernández Ramírez, S.(1987). 『Gramática española. Los sonidos, el nombre y el pronombre』, Madrid: Revista de Occidente.

□ 논문

이만기.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유사성」, 『Revista Iberoamericana』, 15, 2004, 147-169면.

Elena de Miguel, M. & Fernández Lagunilla, M. El operador aspectual SE」,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30(1), 2000, 13-43면.

Groppi, M. 「Duplicaciones pronominales: síntesis de puntos clave」, ms, 2008, 1-24면.

Francom, J. La cláusula reducida y el orden libre de palabras en español」, 『Revista de estudios lingüísticos y literarios』, 1, 2003, 29-43면.

Hernández, M. L. 「Personas generales y tiempo verbal」, 『Verba anexo』, 32: la descripción del verbo español, 1990, 153-162면.

Kim, Un-Kyung. 「La preposición a ante el complemento directo」, 『Revista Iberoamericana』, 4, 1993, 139-178면.

Leonetti, M. 「Indefinidos, nombres escuetos y clíticos en las dislocaciones en español」, 『Cuadernos de LA ALFAL』, 3, 2011, 100-123면.

Leonetti, M. & Escandell-Vidal, V. 「Las anteposiciones inductoras de foco de polaridad」, ms, 2006, 1-18면.

MacDonald, J. 「Spanish aspectual se as an indirect object reflexive: The import of atelicity, bare nouns, and leísta PCC repairs」, 『Probus』, 2016, 1-45면.

Ormazabal, J. & Romero, J. 「Object Clitics and Agreement」, ms, 2010, 1-36면.

Pascual, R. & García, T. 「La relación entre estructura eventiva y papeles

- temáticos: el se aspectual del español」, 『*Revista de Filología Románica*』, 29(2), 2012, 233-243면.
- Pérez Vázquez, E. Pronombres superfluos dativos benefactivos en español e italiano」, 『*Estudios de lingüística contrastiva español e italiano*』, 2007, 11-34면.
- Ramírez, F, M. 「La función sintáctica de sujeto: definición, rasgos descriptivos y normativos」, 『*Revista de filología*』, 28, 2010, 199-213면.
- Sportiche, D. 「Clitic Constructions」, ms. UCLA, 1992, 1-74면.
- Suñer, M. 「The Role of Agreement in Clitic Doubled Construc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1988, 391-434면.
- Trebisacce, R. 「Delimitación eventiva en español: un estudio sobre el se aspectual」, 『*Revista del Departamento de Letras*』, 2013, 198-206면.
- Uriagereka, J. 「Aspects of the Syntax of Clitic Placement in Western Romance」, 『*Linguistic Inquiry*』, 26(1), 79-123면.

이 논문은 2017년 7월 7일 접수되어 7월 28일까지 심사받아 8월 18일 게재 확정됨.